

# “순천 조례호수공원을 시민 품으로...”

### 시민 ‘1만 소 운동’ 서명 동참...사회단체로 확산 소병철 의원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 발의하겠다”

순천시 조례호수공원을 순천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 ‘1만 소 운동’을 제안하며 조례호수공원을 순천시민에게 돌려달라는 요구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요구 전 순천시의회와 이소현 숲사랑 순천시지회장, 박종근 순천청년연합회사무총장 등이 자발적으로 ‘호수공원 시민의 품으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호수공원 온라인지지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승주청년회의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호응하고 있

다. 애초 소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조례호수공원에서 순천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지지 서명으로 전환했다.

조례호수공원은 원래 농업유수를 제공하던 저수지였다. 농업기반공사(2008년 한국농어촌공사로 개칭) 소유인 조례저수지를 1991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며 시민들이 주제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매립에 반대하고 공원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시민단체는 토론회와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전개하며 매립반대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다. 저수지 독에서 천막농성까지 전개하며 호수공원화를 주장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을 보호하자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까지 펼쳐지며, 500여 명의 시민이 조례저수지 땅 한 평 매입금 기부 약정을 했다.

이러한 결과 2004년 6월 순천시장은 조례저수지의 전면 호수공원화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 착공해 2009년 ‘호수공원’으로 탄생했다.

호수 면적은 7만8,419㎡에 달하며 이중 2만433㎡는 순천시가 매입해 음악분수와 실개천, 산책데크 등을 설치했다. 나머지 5만7,986㎡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성된 조례호수는 농업용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법률상으로는 농업용저수지이기에 순천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년 1억 원에 가까

운 임차료를 지급해왔다.

이에 소 의원은 폐지된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나 임대료의 전부·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호수공원특별법(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조례호수는 순천시민들이 가족·친구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휴식·체육 공간이자 대표 공원이다”며 “임차료 부담없이 조례호수공원을 순천시민들께서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조례 호수공원 시민 품으로’ 캠페인을 펼친 승주청년회의소 허동현 회장은 “조례 호수공원이 농어촌공사 소유이고 매년 임차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호수공원을 순천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고흥군 ‘마동 매혼굿’이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고흥군 제공

## ‘고흥 마동 매혼굿’ 전남 무형문화재 된다

고흥군이 ‘고흥 마동 매혼굿’이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고 2일 밝혔다.

‘고흥 마동 매혼굿’은 동강면 마륜리 마동마을에 전승돼 오는 매구로 음력 정월 초승에 풍물패가 풍물을 치면서 마을을 돈 다음 집집마다 들어가 악귀를 쫓고 복을 비는 민속행사이다.

전남도는 최근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흥 마동 매혼굿을 도 무형문화재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 지정은 30일 간의 예고 기간이 지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경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확정되며, 고흥군에서는 다섯 번째 무형문화재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동 매혼굿은 1대 상쇠 박순돌을 시작으로 2대 김계옥, 3대 조순명, 4대 송봉기, 5대 송관섭, 최근 6대 황재중 씨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마동 매혼굿에 대한 기록은 1911년 ‘별신제의절’, 1965년 ‘교자계안’ 등에 전승 내역이 있으며, 백여 년 이상 된 타악기 베틀 13개와 전립 등이 잘 보존돼 있어 매혼굿의 전통이 잘 보존

되고 있다. 마동매혼굿의 구성은 들당산굿, 마당뿔기, 판굿, 문굿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마동매혼굿보존회는 마을주민과 재향 인사로 일찍이 조직돼 확실한 계보로 전승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보존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마동마을을 지키는 당산목은 고흥입향조인 송간이 심었다고 해 그의 시호가 ‘충강’이기에 ‘충강목’ 또는 ‘세제수’라 부르고 있으며, 당산제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해 오다 2019년부터 개방을 하면서 마동매구가 알려지게 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마동 매혼굿은 민간신앙으로 그 주도를 유림들이 했고 그들의 강력한 공간인 서당에서 추진한 독특한 사례이다”며 “고흥의 무형문화재에 대해 학계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의 전남도 지정 무형문화재로는 월봉노악(제27호), 한적들 노래(제30호), 조선장(제50호), 혼된 타악기 베틀 13개와 전립 등이 잘 보존돼 있어 매혼굿의 전통이 잘 보존

/전남취재본부·진중인 기자

### 장성 성산 은행나무 황룡강으로 옮긴다

장성군이 오랫동안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해 온 장성읍 성산 은행나무를 황룡강에 옮겨 심는다. 장소는 지난해 동화면 은행나무를 이식해 조성한 은행나무 수국길이다. 민원 해결과 관광자원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성산 은행나무는 1970년대에 성산변영회가 열매 채취를 목적으로 심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열매를 찾는 수요가 감소하는데, 뿌리가 자라나며 보도블록과 담벼락을 훼손하는 등 꾸준한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다. 급기야 성산 주민들은 은행나무를 베어줄 것을 군에 요청했다.

그러나 군은 바로 벌목작업을 시행하지 않고, 50년 이상 자란 은행나무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심사숙고 기간을 가졌다.

군은 성산 은행나무를 황룡강에 이식할 방침이다. 은행나무 수국길을 연장해 황룡강 방문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그간 불편을 참고 견뎌 준 성산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향상과 이식된 은행나무의 관광자원 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영광군이 최근 불갑산하이패스IC 개통식을 가졌다. /영광군 제공

## 영광 불갑산하이패스IC 목포방향 개통

영광군이 최근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서해안고속도로 영광휴게소에 연결하는 불갑산하이패스IC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기호 국회의원, 김준성 영광군수, 최은영 영광군의회의장, 엄인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공사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불갑산하이패스IC(하행선) 건설은 2015년 국토교통부에 건의 및 영광군과

한국도로공사간 하이패스IC 건설사업 협약을 통해 사업규모, 노선 등이 확정됐다.

이후 영광군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9년 8월 공사에 들어가 2년 5개월간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해 지난달 29일 오후 개통식을 가졌다. 하이패스단말기를 부착한 4.5톤 미만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불갑산하이패스 IC 개통으로 남부지역에서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 향상과 군 주요 관광지인 불갑테마공원, 불갑사지구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교통물류 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불갑산하이패스 IC 상행선(서울방향)은 영광읍 학정리에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올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영광=곽용순 기자

### 신안, 채무 ‘제로화’ 달성

신안군이 최근 지방채 248억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고 채무 ‘제로화’를 달성했다.

2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4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신안군은 지난 2026년부터 오는 2035

년까지 상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와 인적외 부진한 사업들의 감액을 통해 지난해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채 248억원 전액 상환을 계상했다.

최근 열린 신안군의회에서 통과돼 예정보다 서둘러 상환하고 재정운영 부담을 덜게 돼 향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광양제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광양시 금호동이 광양제철 ‘제로 에너지 희망하우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뇌병변장애 독거가구에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

‘희망하우스’는 광양제철소가 2005년부터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다가 2018년부터 ‘희망하우스’로 명칭을 바꾸고 일반가정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상자는 뇌병변장애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해 거의 집안에 누워있으며, 연락되는 가족이 없어 주변의 지원 없이 사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대상 어르신은 “움직이기 어려워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답답하고 울적했는데 이렇게 깨끗한 새집을 보니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 신안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

신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 부분의 실적 우수 보건소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신안군 보건소는 신안군민의 걷기 실천을 향상을 위한 ‘꽃길만 걸자’와 70세 이상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걷기기 우울증 예방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한 ‘깡년기

화해하자’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에서 전래놀이, 직장인대상 비만예방 등을 전개해 신체 활동량 증진을 도모했다. 한편, 신안군 보건소는 이밖에 모바일 헬스케어와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연계 등을 통한 신체활동 증가와 생활습관 개선 등 맞춤형 신체활동 관리 역량강화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신안=이주열 기자



### 김재현 대표·김성중 지회장, 17년째 선행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파란전사 나주 지회(지회장 김성중)는 최근 (주)성도건설 김재현 대표가 기탁한 쌀 20포를 나주시 세지면에 있는 행복의집 노인요양원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김성중 지회장과 김재현 대표는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이지만 참여했다”고 말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 나주시사랑발전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성중 회장은 설과 추석, 연말 등 때마다 3회에 걸쳐 쌀 등 물품과 재능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아원 등 불우이웃 등에 17년째 기부 선행을 이어왔다. /나주=이재순 기자